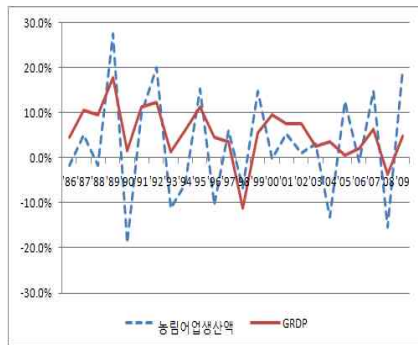


서귀포 지역경제의 진단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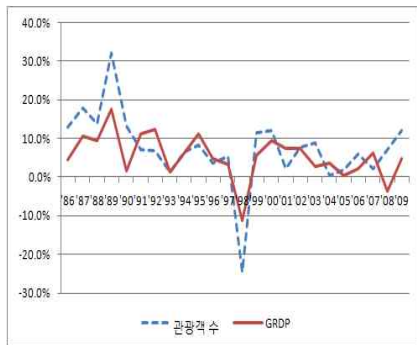
고태호(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I. 들어가며

- 제주지역 경제는 관광산업과 농림어업의 성장에 힘입어 1970~1980년 대에는 비교적 고성장을 지속해 왔음
 - 1985~1989년 연평균 18.9%, 6.7%에 이르는 관광객 및 농림어업 생산액 증가율에 힘입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5%로 나타남
-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기반산업의 침체로 인해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는 실정임
 - 1990~2009년 관광객 연평균 증가율은 4.2%, 농림어업 생산액 연평균 증가율은 2.5% 수준으로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 또한 4.4%대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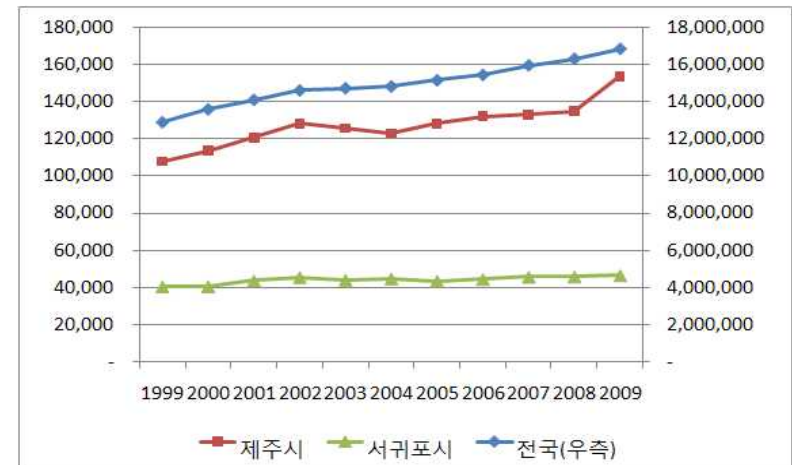


(그림 1-1) 농림어업 생산액 증가율



(그림 1-2) 관광객 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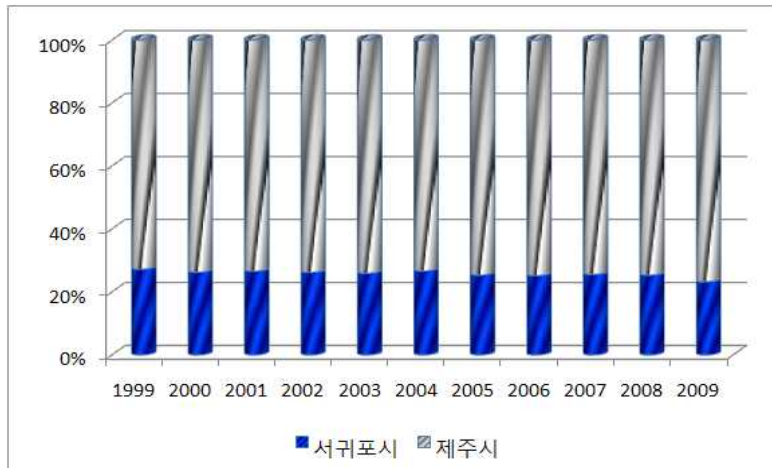
- 특히 상대적으로 감귤과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은 서귀포 지역경제는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보다 민감한 구조임
- 서귀포지역 사업체 종사자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1999~2009년 연평균 증가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¹⁾
 - 같은 기간 전국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2.7%, 제주 시는 3.6%로 나타남



(그림 1-3) 사업체 종사자 수 현황

- 또한 서귀포지역 사업체 종사자가 제주지역 전체 사업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27.2%에서 2010년 23.3%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현재 지역경제 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GRDP 자료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음
다만 사업체·종사자 수 통계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생산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서귀포 지역 경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그림 1-4) 사업체 종사자 수 비중

- 향후 특별한 성장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는 한 서귀포 지역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고착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서귀포 지역경제의 문제점을 지출구조 측면과 산업구조 측면에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대안 등을 모색하고자 함

II. 서귀포지역 일반 경제 현황

- 여기에서는 서귀포지역의 사업체·종사자 수 추이 및 지역내총생산 (GRDP) 현황 등을 통해 서귀포 지역경제 현황을 고찰함
 - 사업체·종사자 수 추이는 각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제시함²⁾
 - 서귀포지역의 GRDP 현황은 서귀포지역 사업체 종사자 규모가 제주 지역 전체 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서귀포지역 종사자 수/제주지역 종사자 수)을 제주지역 GRDP에 적용하여 추정함
 - 현재 시군구지역의 GRDP는 조사·공표되고 있지 않은 바,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서귀포지역의 GRDP 현황을 추정·제시함

1. 사업체 현황

- 2009년 기준 서귀포지역 내 사업체 수는 11,658개소로, 제주지역 전체 사업체의 25.3%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지역 전체 사업체 수 대비 서귀포지역 사업체 수 비중은 2005년 27.3%, 2007년 26.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서귀포지역 사업체 수는 2005년 11,814개소, 2009년 11,658개소로, 연평균 증가율은 -0.3%로 나타남
 - 사업체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2007년 -0.2%, 2007~2009년 -0.5%로, 사업체 수의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²⁾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1개 산업별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지역내총생산(GRDP)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17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여 제시함

- 제주지역 전체 사업체 수가 2005~2009년 연평균 1.5% 증가한 것은 제주시의 사업체 수 증가에 기인한 것임
- 제주시 사업체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2007년 1.5%, 2007~2009년 2.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1> 제주지역 사업체 수 추이

(단위: 개소, %)

구분	2005	2007	2009	연평균증가율		
				'05~'07	'07~'09	'05~'09
전국	3,204,809	3,262,925	3,293,558	0.9	0.5	0.7
제주도	43,305 (100.0)	44,246 (100.0)	45,990 (100.0)	1.1	2.0	1.5
제주시	31,491 (72.7)	32,470 (73.4)	34,332 (74.7)	1.5	2.8	2.2
서귀포시	11,814 (27.3)	11,776 (26.6)	11,658 (25.3)	-0.2	-0.5	-0.3

주: ()안은 비중

- 서귀포지역 내 사업체 현황을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9년 기준 서귀포지역 사업체 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3,320개소, 28.4%), 숙박 및 음식점업(2,953개소, 25.3%) 등 관광관련 산업으로 나타남
 - 2005~2009년 기준 사업체 수 증가율 추이를 보면, 증가율이 높은 산업은 사업서비스업(18.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7%), 교육서비스업(3.8%) 등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2005~2009년 기준 사업체 수가 감소한 산업은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18.4%), 정보 및 통신업(-6.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7%) 등으로 나타남

<표 2-2> 서귀포지역 사업체 수 추이

(단위: 개소, %)

구분	2005	2007	2009	연평균 증가율		
				'05~'07	'07~'09	'05~'09
총계	11,814	11,776	11,658	-0.2	-0.5	-0.3
농림어업	289	285	241	-0.7	-8.0	-4.4
광업	8	8	8	0.0	0.0	0.0
제조업 ¹	502	499	458	-0.3	-4.2	-2.3
전기·가스·증기·수도업	7	7	7	0.0	0.0	0.0
건설업	268	272	239	0.7	-6.3	-2.8
도매 및 소매업	3,370	3,362	3,320	-0.1	-0.6	-0.4
운수업	1,334	1,265	1,258	-2.6	-0.3	-1.5
숙박 및 음식점업	2,940	2,927	2,953	-0.2	0.4	0.1
정보 및 통신업	41	34	32	-8.9	-3.0	-6.0
금융 및 보험업	167	173	170	1.8	-0.9	0.4
부동산 및 임대업	207	206	182	-0.2	-6.0	-3.2
사업서비스업 ²	116	152	227	14.5	22.2	18.3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	153	147	68	-2.0	-32.0	-18.4
교육서비스업	422	537	489	12.8	-4.6	3.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44	259	354	3.0	16.9	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467	378	386	-10.0	1.1	-4.7
기타서비스업	1,279	1,265	1,266	-0.5	0.0	-0.3

주1: 제조업 =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주2: 사업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 사업체 종사자 현황

- 2009년 기준 서귀포지역 내 종사자 수는 46,552명으로, 제주지역 전체 종사자 수의 23.3%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지역 전체 종사자 수 대비 서귀포지역 종사자 수 비중은 2005년 25.4%, 2009년 23.3%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5~2009년 기준 서귀포지역 내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6%로, 같은 기간 제주시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4.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또한 서귀포지역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2007년 2.4%, 2007~2009년 0.9%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음
 - 이에 반해 제주시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1.8%, 7.4%로, 증가 추세가 확대되고 있음

- 서귀포지역 내 사업체 종사자 현황을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9년 기준 서귀포지역 사업체 종사자 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9,155명, 19.6%), 도매 및 소매업(8,435명, 18.1%) 등 관광관련 산업으로 나타남
 - 2005~2009년 기준 종사자 수 증가율 추이를 보면, 증가율이 높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1%), 사업서비스업(7.4%),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4.8%) 등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2005~2009년 기준 종사자 수가 감소한 산업은 정보 및 통신업(-6.2%), 전기·가스·증기·수도업(-3.4%), 부동산 및 임대업(-2.0%) 등으로 나타남

<표 2-3> 제주지역 종사자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5	2007	2009	연평균증가율		
				'05~'07	'07~'09	'05~'09
전국	15,147,471	15,943,674	16,818,015	2.6	2.7	2.6
제주도	171,844 (100.0)	178,778 (100.0)	200,130 (100.0)	2.0	5.8	3.9
제주시	128,240 (74.6)	133,020 (74.4)	153,578 (76.7)	1.8	7.4	4.6
서귀포시	43,604 (25.4)	45,758 (25.6)	46,552 (23.3)	2.4	0.9	1.6

주: () 안은 비중

<표 2-4> 서귀포지역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

(단위: 개소, %)

구분	2005	2007	2009	연평균증가율		
				'05~'07	'07~'09	'05~'09
총계	43,604	45,758	46,552	2.4	0.9	1.6
농림어업	3,074	3,031	2,850	-0.7	-3.0	-1.9
광업	147	108	157	-14.3	20.6	1.7
제조업 ¹	1,931	2,133	2,119	5.1	-0.3	2.3
전기·가스·증기·수도업	309	266	269	-7.2	0.6	-3.4
건설업	1,700	2,214	1,757	14.1	-10.9	0.8
도매 및 소매업	8,024	8,438	8,435	2.5	0.0	1.3
운수업	2,164	2,378	2,378	4.8	0.0	2.4
숙박 및 음식점업	9,271	8,746	9,155	-2.9	2.3	-0.3
정보 및 통신업	343	368	265	3.6	-15.1	-6.2
금융 및 보험업	1,970	1,825	1,926	-3.8	2.7	-0.6
부동산 및 임대업	470	453	434	-1.8	-2.1	-2.0
사업서비스업 ²	937	1,326	1,245	19.0	-3.1	7.4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	2,389	2,634	2,886	5.0	4.7	4.8
교육서비스업	3,474	4,007	3,577	7.4	-5.5	0.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833	2,297	3,443	11.9	22.4	17.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721	2,927	2,985	3.7	1.0	2.3
기타서비스업	2,847	2,607	2,671	-4.3	1.2	-1.6

주1: 제조업 =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주2: 사업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 GRDP 현황³⁾

- 2009년 기준 서귀포지역 GRDP는 2,655,852백만원(제주지역 GRDP의 28.0% 수준)으로 추정됨

<표 2-5> 서귀포지역 GRDP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제주도	서귀포	
		생산액	비중
지역내총생산	9,477,605	2,655,852	28.0%
순생산물세	591,693	137,633	23.3%
농림어업	1,670,572	990,458	59.3%
광업	22,456	11,674	52.0%
제조업	367,426	84,107	22.9%
전기·가스·증기·수도업	96,353	20,768	21.6%
건설업	736,923	108,141	14.7%
도매 및 소매업	779,402	198,864	25.5%
운수업	465,219	76,228	16.4%
숙박 및 음식점업	431,920	117,928	27.3%
정보 및 통신업	191,393	15,985	8.4%
금융 및 보험업	490,341	100,191	20.4%
부동산 및 임대업	635,763	93,501	14.7%
사업서비스업	192,088	19,654	10.2%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	1,008,526	234,651	23.3%
교육서비스업	745,495	160,312	21.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89,071	119,314	2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385,465	124,633	32.3%
기타서비스업	177,499	41,811	23.6%

주: 2009년 명목 GRDP 기준

자료: 통계청(2010),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www.kosis.kr)

- 3) 서귀포지역의 GRDP는 산업별 제주지역 전체 사업체 종사자 규모 대비 서귀포지역 사업체 종사자 규모(서귀포지역 종사자 수/제주지역 종사자 수)를 제주지역 GRDP에 적용하여 추정함

- 2005~2009년 기준 서귀포지역 연평균 실질 GRDP 성장률은 1.3%로, 제주도 전체 연평균 성장률 2.3% 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됨

<표 2-6> 서귀포지역 GRDP 성장률

(단위: 백만원, %)

구분	2005	2007	2009	연평균성장률		
				05~07	07~09	05~09
제주도	7,966,167	8,650,583	8,739,237	4.2	0.5	2.3
서귀포시	2,321,480	2,542,769	2,443,713	4.7	-2.0	1.3

주: 실질 GRDP 기준

- 2009년 기준 서귀포지역 1인당 GRDP는 16.05백만원으로, 제주지역 1인당 GRDP(15.53백만원)의 103.3% 수준임
 - 이는 전국 평균 1인당 GRDP(20.08백만원)의 79.9% 수준임

<표 2-7> 연도별 1인당 GRDP

(단위: 백만원)

연도별	전국	제주도	서귀포시		
			1인당 GRDP	전국 대비 비중	제주도 대비 비중
2005	17.82	14.29	14.80	83.1%	103.6%
2006	18.66	14.56	15.18	81.4%	104.3%
2007	19.59	15.47	16.53	84.4%	106.9%
2008	20.02	14.87	16.62	83.0%	111.8%
2009	20.08	15.53	16.05	79.9%	103.3%

주: 실질 GRDP 및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4.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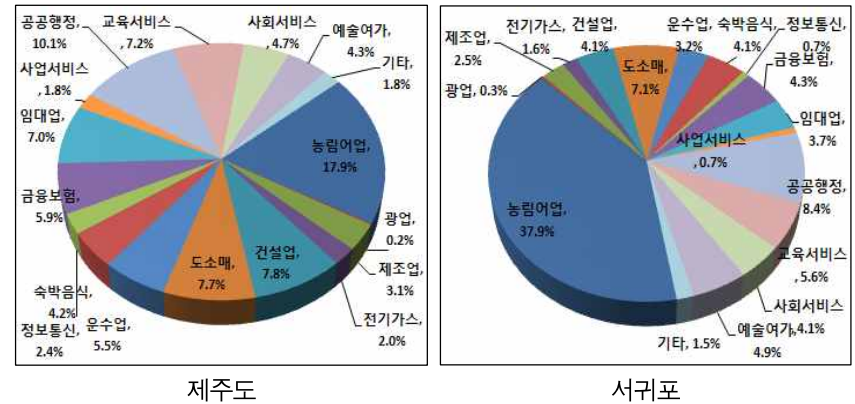
- 서귀포지역 GRDP를 토대로 산업구조를 분석한 결과, 2009년 기준 서귀포지역 산업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농림어업으로, 약 37.9% 수준으로 추정됨
 - 이는 제주지역(17.9%)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서귀포지역 산업구조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4.0%, 2007년 33.2%, 2009년 37.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다음으로 서귀포지역 산업구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 '도매 및 소매업(7.1%)' 순으로 나타남
- 서귀포지역의 관광관련 산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은 4.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의 비중은 4.9%로 나타남
 -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은 2005년 4.4%, 2007년 4.1%, 2009년 4.1%로 다소 감소함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의 비중은 2005년 3.4%, 2007년 5.1%, 2009년 4.9%로 증가 추세에 있음

<표 2-8> 서귀포지역 산업구조

(단위: %)

구분	2005		2007		2009	
	제주도	서귀포	제주도	서귀포	제주도	서귀포
지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17.0	34.0	17.8	33.2	17.9	37.9
광업	0.3	0.6	0.2	0.4	0.2	0.3
제조업	2.8	2.2	2.7	2.2	3.1	2.5
전기·가스·증기·수도업	1.8	1.8	1.8	1.8	2.0	1.6
건설업	9.1	5.8	8.3	6.4	7.8	4.1
도매 및 소매업	7.7	6.9	7.8	7.1	7.7	7.1
운수업	5.1	3.0	5.5	3.5	5.5	3.2
숙박 및 음식점업	4.5	4.4	4.3	4.1	4.2	4.1
정보 및 통신업	2.5	2.0	2.5	1.1	2.4	0.7
금융 및 보험업	5.7	4.6	5.7	4.1	5.9	4.3
부동산 및 임대업	7.0	4.0	6.8	3.7	7.0	3.7
사업서비스업	1.9	0.9	2.1	1.0	1.8	0.7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	9.7	8.4	9.7	8.8	10.1	8.4
교육서비스업	7.1	5.8	7.0	5.9	7.2	5.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0	2.8	4.0	3.0	4.7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3.1	3.4	4.0	5.1	4.3	4.9
기타서비스업	1.9	1.7	1.8	1.6	1.8	1.5

주: 각 연도 실질 GRDP 기준으로 추정



(그림 2-1) 산업구조의 비교

5. 기반산업

- 기반산업을 도출하기 위하여 입지상법⁴⁾을 이용한 산업의 지역특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귀포지역 내에 대표적인 기반산업은 농림어업과 관광산업으로 분석됨
 - 기반산업 즉, LQ(입지상 계수)가 1이상인 산업은 농림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등이며, 비기반산업 즉, LQ가 1이하인 산업은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정보 및 통신업 등임
 - 2009년 기준 서귀포지역 농림어업은 LQ가 12.03으로, 가장 중요한 기반산업으로 나타남

4) 입지상법은 산업의 지역 특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산업의 특화도는 산업별 입지상 계수(Location Quotient)로 나타냄. 입지상 계수는 산업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그 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측정됨. 입지상 계수가 1이상이면 기반산업 즉, 제화 또는 서비스를 지역 외부로 수출하는 산업으로 볼 수 있으며, 입지상 계수가 1이하이면 비기반산업 즉, 제화 또는 서비스를 수입하는 산업으로 볼 수 있음

- 2009년 기준 관광관련 산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LQ는 각각 2.00, 4.12로 나타남

<표 2-9> 산업별 입지상 계수

산업구분	2005	2007	2009	기반산업 여부
농림어업	11.22	11.69	12.03	○
광업	2.32	2.01	1.54	○
제조업	0.09	0.08	0.09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88	0.87	0.71	×
건설업	0.82	0.95	0.63	×
도매 및 소매업	0.82	0.85	0.86	×
운수업	0.72	0.83	0.74	×
숙박 및 음식점업	2.06	1.96	2.00	○
정보 및 통신업	0.47	0.27	0.17	×
금융 및 보험업	0.72	0.61	0.60	×
부동산업 및 임대업	0.54	0.52	0.51	×
사업서비스업	0.21	0.22	0.15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41	1.51	1.41	○
교육서비스업	1.04	1.09	1.01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0	1.04	1.2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8	4.44	4.12	○
기타서비스업	0.82	0.75	0.71	×

III. 지출구조 측면에서의 문제점

- 지역경제에 있어서의 지출구조는 민간(가계 및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의 소비와 투자를 의미함
- 서귀포 지역경제가 지출구조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에는 지역 소비시장 규모의 감소, 가계소비의 역외 지출,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 중간재 이용의 역외 의존도 등을 제시할 수 있음

1. 지역 소비시장 규모의 감소

- 서귀포지역의 소비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 이는 지역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지역 소비시장 규모의 감소는 서귀포지역의 소비력 감소를 의미하며, 이러한 소비력 감소는 지역 내 생산 감소로 이어짐
- 서귀포지역 인구 통계를 토대로 지역 소비시장 여건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0년 기준 서귀포지역의 인구는 153,716명으로, 소비시장 규모가 매우 협소하다고 할 수 있음
 - 서귀포지역은 면적으로는 제주도(1,848.72km²)의 47.1%(870.79km²)에 이르나, 인구는 제주도 인구(571,255명)의 약 26.9%에 불과함
 - 특히 서귀포지역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어 소비시장 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서귀포지역 인구는 1992년 167,856명이었으나 2010년 153,716명으로 약 14,140명이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49%로 나타남

· 이에 비해 제주시 인구는 1992년 337,928명에서 2010년 417,539명으로 약 79,611명이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1.18%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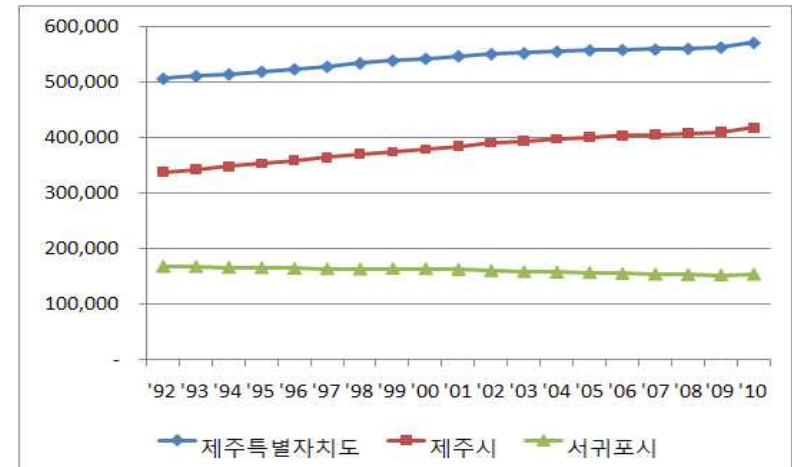
<표 3-1> 서귀포지역 인구 증감 추이

(단위: 명, %)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인구수	증감율	인구수	증감율	인구수	증감율
1992	505,784	-	337,928	-	167,856	-
1993	510,584	0.95	343,005	1.50	167,579	-0.17
1994	513,905	0.65	347,857	1.41	166,048	-0.91
1995	518,836	0.96	353,575	1.64	165,261	-0.47
1996	523,022	0.81	358,869	1.50	164,153	-0.67
1997	527,586	0.87	364,156	1.47	163,430	-0.44
1998	534,008	1.22	370,846	1.84	163,162	-0.16
1999	538,744	0.89	374,738	1.05	164,006	0.52
2000	542,368	0.67	378,762	1.07	163,606	-0.24
2001	546,889	0.83	384,515	1.52	162,374	-0.75
2002	550,831	0.72	390,414	1.53	160,417	-1.21
2003	552,297	0.27	393,952	0.91	158,345	-1.29
2004	555,362	0.55	397,983	1.02	157,379	-0.61
2005	557,569	0.40	400,701	0.68	156,868	-0.32
2006	558,496	0.17	403,601	0.72	154,895	-1.26
2007	559,258	0.14	405,458	0.46	153,800	-0.71
2008	560,618	0.24	407,498	0.50	153,120	-0.44
2009	562,663	0.36	410,378	0.71	152,285	-0.55
2010	571,255	1.53	417,539	1.74	153,716	0.94
연평균 증가율	0.68	-	1.18	-	-0.49	-

주: 1992~2005년 제주시 인구는 행정계층 개편 전 제주시와 북제주군 인구의 합이며, 서귀포시 인구는 행정계층 개편 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인구의 합임

자료: 통계청,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각연도(www.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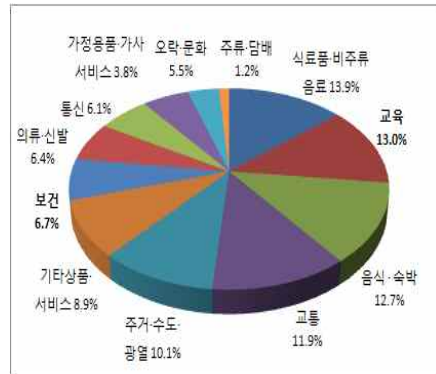
(그림 3-1) 제주지역 인구 증감 추이

2. 가계소비의 역외 지출

- 서귀포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기반이 미약하여 가계소비 지출이 제주시 및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 역외 지출되는 가계소비 지출항목 중 대표적으로 교육·의료비를 토대로 서귀포지역의 가계소비 역외 지출 실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교육·의료비는 가계소비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출 항목임

□ 가계 소비지출의 부문별 비중

- 2010년 기준 전체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286,874원임
 - 소비지출 부문별 비중을 살펴보면 교육비가 13.0%로, 식료품 13.9%에 이어 2위로 나타남
 - 보건비(의료비)는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계 소비지출의 부문별 비중

자료: 통계청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www.kosis.kr)

- 서귀포지역은 미약한 교육 기반으로 인해 관외 고교 진학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관련 교육비 지출이 지역 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중·고교 진학 연령인 15~19세 인구의 전출 규모는 2000년 1,082명, 2010년 903명으로, 매년 약 1천여명의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15~19세 인구의 전출을 통해 서귀포지역 가계 지출 중 교육비 부문이 서귀포지역 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서귀포지역은 미약한 의료 기반으로 인해 지역 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의료비 지출이 지역 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2009년 기준 관외 의료비 지출 규모를 비교한 결과 제주도는 인구 천명당 156.3백만원, 제주시는 인구 천명당 170.2백만원인데 비해 서귀포지역은 인구 천명당 551.8백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기준 전국 평균 관외 의료비 지출 규모는 인구 천명당 229.1백만원임
 - 특히 서귀포지역의 관외 의료비 지출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는 바, 가계소비의 역외 유출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서귀포지역의 관외 의료비 지출 규모는 2006년 49,260백만원에서 2010년 84,029백만원으로 연평균 19.5% 증가함

<표 3-2> 관외 의료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천명)

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진료비	인구	인구 천명당 진료비	진료비	인구	인구 천명당 진료비	진료비	인구	인구 천명당 진료비
2006	48,231	558	86.4	53,169	404	131.7	49,260	155	318.0
2007	51,158	559	91.5	41,507	405	102.4	45,374	154	295.0
2008	73,809	561	131.7	60,967	407	149.6	68,883	153	449.9
2009	87,950	563	156.3	69,840	410	170.2	84,029	152	551.8

자료: 통계청, 시군구별 급여성태별 진료실적 현황(관외) 각연도(www.kosis.kr)

3.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 지역경제는 '생산→투자'의 순환 과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성장할 수 있음
- 그러나 서귀포지역의 경우 지역 자금이 구조적으로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즉 서귀포지역은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로 '생산→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지 못함에 따라 지역경제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음
- 대표적인 서귀포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원인으로는 외지업체들의 지역 내 진출 확대를 제시할 수 있음
 - 외지 소유 대형 유통업체 및 관광업체 등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타 지역 소재 본사로 송금하기 때문에 지역 내 자금의 역외 유출을 유발함
- 서귀포지역은 협소한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외지 소유 대형마트 수가 많은 한편 지역의 자본에 의존하는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2006년 기준 지역 내 대형마트 수를 비교한 결과 서귀포지역은 인구 십만명당 1.3개소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남
 - 2006년 기준 인구 십만명당 대형마트 수는 전국 평균 0.7개소, 서울 지역은 0.5개소로 나타남

<표 3-3> 시도별 대형마트 현황(2006년 기준)

(단위: 개소, 명)

시도	대형마트 수(개소)	인구(명)	인구 십만명당 대형마트 수
전국	331	48,991,779	0.7
서울특별시	55	10,181,166	0.5
부산광역시	32	3,611,992	0.9
대구광역시	18	2,496,115	0.7
인천광역시	21	2,624,391	0.8
광주광역시	12	1,407,798	0.9
대전광역시	13	1,466,158	0.9
울산광역시	12	1,092,494	1.1
경기도	84	10,906,033	0.8
강원도	9	1,505,420	0.6
충청북도	9	1,494,559	0.6
충청남도	7	1,974,433	0.4
전라북도	11	1,868,365	0.6
전라남도	11	1,942,925	0.6
경상북도	14	2,688,577	0.5
경상남도	19	3,172,857	0.6
제주도	4	558,496	0.7
서귀포시	2	154,895	1.3

자료: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 대형마트 지역별 점포현황(2006. 12. 31 기준) 및 통계청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 서귀포 지역 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대체로 지역 외 자본에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는 바,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서귀포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단기적으로 민자 유치에 의한 관광개발사업은 관광시설 건설 등 건설 산업의 수요를 증대시켜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 외 자본에 의한 관광개발 이익은 제주지역 내로 재투자되지 않고, 이익 배분에 따라 지역 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음

<표 3-4> 서귀포지역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현황

(2010. 11. 3현재)

사업명	위치	면적(m ²)	투자액(억원)	사업시행자	지정일(변경일)
합계	18개소	7,105,218	54,186		
해비치 관광호텔	표선면 표선리	26,303	1,749	해비치리조트(주)	'07.06.20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서귀포시 상례동	744,205	22,849	버자야 제주 리조트(주)	'07.12.31 ('09.12.30)
성산포(섬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성산읍 고성리	631,782	3,870	(주)보광제주	'08.04.02
ICC 제주 앵커 호텔	서귀포시 중문동	20,900	1,277	아시아신탁(주)	'09.07.01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안덕면 서광리	4,001,613	15,945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09.12.30
예래정 조성사업	서귀포시 상례동	9,467	67	영농조합법인 범영관광농원	'09.12.30
한라힐링파크 조성 사업	안덕면 상천리	131,935	584	(주)휘현산업 개발	'10.03.10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서귀포시 동홍동	1,539,013	7,845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11.11.03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www.jeu.go.kr) 내부자료

4. 중간재 이용의 역외 의존도

- 서귀포지역은 산업 입지 여건이 열악하고 제조업 성장이 미진하여 생산 및 소비에 필요한 대부분의 원재료, 중간재 및 완제품 등을 역외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자금 유출이 유발되고 있음
 - 한국은행 제주본부(2008)에 의하면 제주지역 순이입 규모는 2006년 기준 13,645억원으로, 이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재화의 상당 부분을 타지역에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대형유통업체의 제주지역 내 생산품 이용 실적 또한 미비한 점을 감안할 경우 제주지역 산업 비중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 소매업(8.3%) 또한 중간재 이용의 역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제주지역 6개 대형마트의 전체 매출에서 지역 내 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8%(513억원)에서 2008년 14%(464억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⁵⁾
- 통계자료 수집 등의 한계로 인해 서귀포지역의 중간재 이용에 대한 역외 의존도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하나, 제주시 지역에 비해 열악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서귀포지역의 중간재 이용의 역외 의존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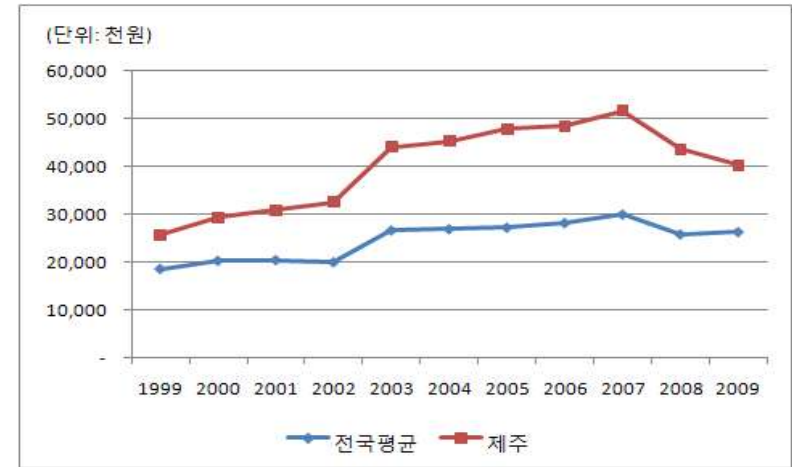
5) 제주일보(2010. 11. 19) 대형마트, 지역 기여도 높여야

IV. 산업구조 측면에서의 문제점

- 지역경제에 있어서의 산업구조는 각종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호 연관관계를 의미함
 -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귀포지역은 농림어업과 관광산업으로 특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서귀포 지역경제가 산업구조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에는 기반산업 관련 환경 변화 및 약한 산업간 연관관계 등을 제시할 수 있음

1. 기반산업 관련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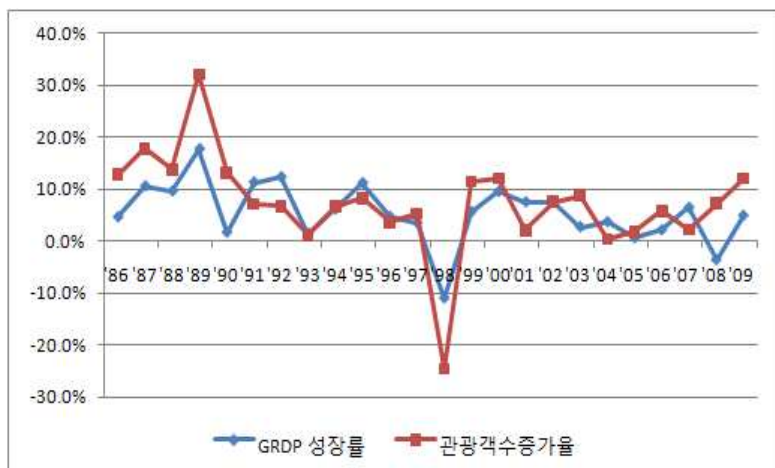
- 서귀포 지역경제는 농림어업과 관광산업에 의해 지탱해 왔으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 농림어업의 경우 WTO체제의 출범, FTA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서귀포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력을 상실하고 있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완전 개방화가 이루어질 경우, 농어업부문의 생산은 약 114백억원~124백억원, 고용은 약 28백명~30백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⁶⁾(제주특별자치도·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2009년 기준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40,172천원으로, 전국 평균(26,268천원)의 약 1.5배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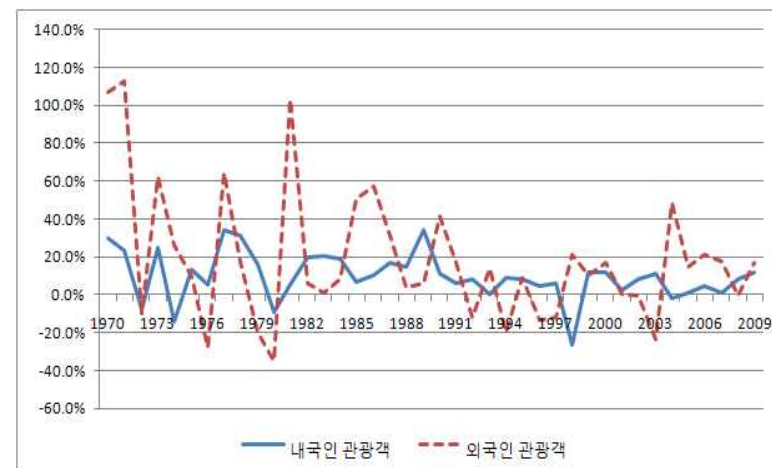
(그림 4-1) 가구당 농가부채 증가 추이

- 관광산업 또한 해외여행 자율화, 동남아 저가 관광상품 확대, 신흥여행지로서의 선호도 감소 등으로 인해 서귀포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력을 상실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관광객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실정임
 - 1970~80년대 제주 방문 관광객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3.2%, 16.5%였으나, 1990~2000년대에는 2.3%, 5.3%로 둔화됨

⁶⁾ 2005년 기준 제주지역 농림어업 생산은 1,310백만원이며, 고용은 52백명임.



(그림 4-2) 제주지역 경제 성장률과 방문 관광객 수 증가율



(그림 4-3) 제주 입도 관광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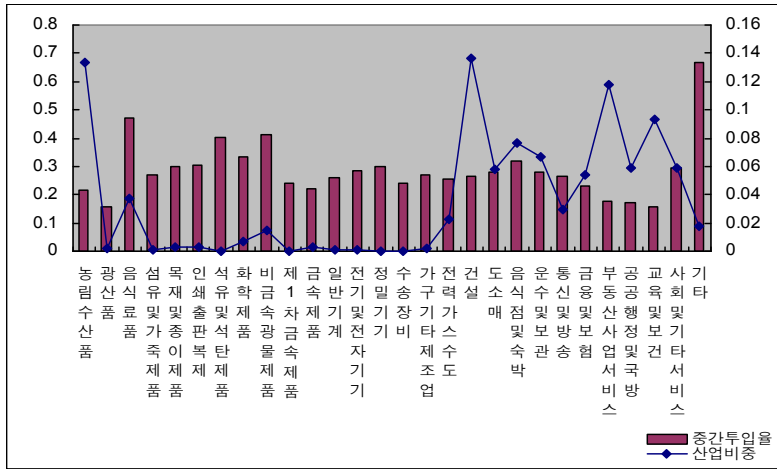
- 전체 관광객에서 관광 지출액이 큰 외국인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에, 관광 지출액이 작은 수학여행단 등의 단체 관광객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9년 기준 제주를 방문한 총 관광객은 6,524천명으로, 이 중 외국인관광객은 전체 관광객의 약 9.7% 수준인 633천명에 불과함
- 수학여행단 등의 단체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26.6% 수준인 1,737천명에 이룸

- 이러한 양대 기반산업의 침체는 서귀포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약한 산업간 연관관계

- 제주를 비롯한 서귀포지역의 산업구조는 산업간 연관관계가 약한 구조임
- 산업간 연관관계란 산업간 제품의 흐름, 즉 어느 한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일부가 다른 산업에서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관계를 말함(김홍배, 2005)
- 이는 중간재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음식료품 제조업 등의 제조업 비중은 낮은 반면에, 중간투입률이 낮은 농림어업의 비중은 높은 것이 원인임

- 서귀포지역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 불과한 반면에, 농림어업은 약 37.9%를 차지(2009년 기준)하고 있음
- 2009년 기준 서귀포지역 내 제조업 사업체 수는 총 458개소로, 이 중 종업원이 50인 이상인 업체 수의 비중은 0.66%(3개)에 불과함
-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임



(그림 4-4) 제주지역 산업연관관계

- 규모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제조업은 효율성면에서도 여타 지방에 비해서 크게 열위한 실정임
- 2009년 기준 서귀포지역 제조업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액(10인 이상 기업 기준)은 90.1백만원으로, 전국 152.7만원의 약 59.0% 수준에 불과함
- 이로 인해 정책 및 수요 증대에 따른 경제파급효과가 낮게 나타남

V. 정책 제언

- 서귀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고찰한 지출구조 및 산업구조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함

1. 지역 소비시장 규모 확대

- 서귀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구 유입 등을 통한 지역 소비시장의 규모 확대가 필요함
- 지역경제에서 인구는 지역의 소비력, 생산력, 자본력의 근간이 되는 바, 이를 확대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 그러나 서귀포지역의 경제적 여건 상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한 인구 유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현실적으로 신규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제주혁신도시 및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 등 국가사업의 계획인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가사업의 계획 인구의 서귀포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서귀포지역의 청정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은퇴인구 유입 방안 모색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국가사업 계획인구의 활용

- 현재 서귀포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국가사업은 지역 인구 유입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서귀포지역 내에 조성되고 있는 제주혁신도시, 제주영어교육도시 등은 지역 내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혁신도시의 계획 인구는 2020년 기준 5,100명,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계획인구는 2017년 기준 23,000명임
- 특히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지방 이전에 따른 자녀 교육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 신규 유입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의료 인프라 등을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서귀포지역 내 적절한 교육·의료 인프라 구축은 가계소비의 역외지출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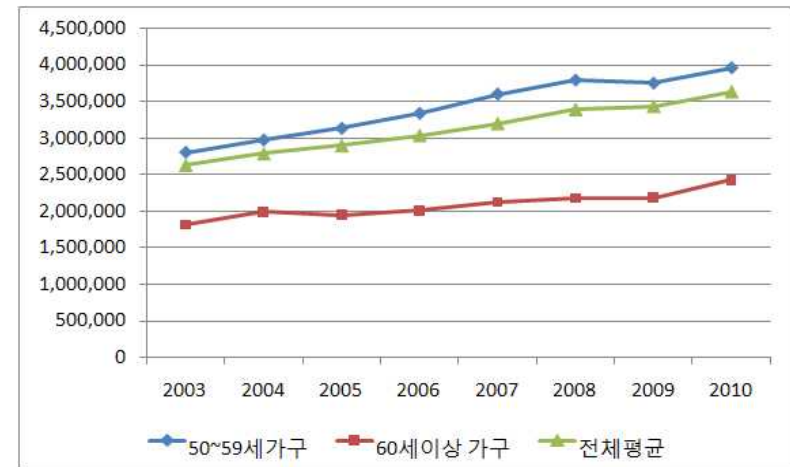
□ 혁신·기업도시 '세종'에 올다. "애들이 사투리 배우면 어떡해요"

- '주간동아'가 입수한 직원 500명 이상인 한 공공기관의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0.2%가 '단독 부임'하겠다고 응답
 - '단독 부임'하려는 이유로는 자녀 학교 문제가 61.2%로 가장 많은 응답 비중을 차지
- 취학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거하는 이유에는 '우수한 학교 부족'이 70.9%를 차지
- 지방 이전시 문제점으로는 '가족 별거로 인한 생활비 증액(23.4%)', '병원과 복지공간 등 편의시설 부족(16.8%)' 등을 응답

자료: 주간동아 2010. 3. 10일자

■ 은퇴인구의 유치

- 최근 고령인구는 경제력이 크게 향상되어 가구당 구매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소비 직접주체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삼성경제연구소, 2002)
- 2010년 기준 향후 은퇴인구의 주축이 될 50~59세 가구주 연간 소득은 3,961,573원으로, 전체 평균 소득(3,631,713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60세 이상 가구주의 연간 소득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5-1) 가구주 연령별 연간 소득 추이

- 이러한 은퇴인구를 전략적으로 서귀포지역으로 유치할 경우 인구 유입 효과뿐만 아니라 실버산업 등 신사업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은퇴인구의 유입은 유입자본의 증가, 소비지출의 증가, 지역사회의 일자리와 다양한 직업 창출, 지방세수 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옴(Deller, 1995; Hodge, 1991; Sasrty, 1992; Reeder 1998 등)
- 전라남도는 이러한 은퇴인구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 은퇴도시 등을 조성하고 있는 바, 서귀포지역 또한 은퇴인구 유입을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라남도 은퇴도시 조성

- 전라남도는 2009년 5월 휴양·레저형 은퇴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후보지로 내륙형 9곳과 임해형 5곳의 총 14개 지구를 선정
 - 은퇴도시란 건강, 잠재력 등 정상적 생활이 가능한 은퇴자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여가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시설 및 관련 편의시설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복합주거단지를 의미
- 은퇴도시 조성계획 발표 이후 2009년 7월 광주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
 - 해남 문내지구 은퇴도시는 2013년까지 601만㎡ 부지에 총공사비 1.5조원을 투입하여 6,400세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
 - 장흥 안양지구 은퇴도시는 2014년까지 233만㎡ 부지에 총공사비 5,137억원을 투입하여 2,576세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

자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2009) '전남지역 은퇴도시 조성의 시사점'

2. 지출구조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서귀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가계·기업 등의 소비 및 투자가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출구조의 선순환 시스템은 「가계소비의 지역 내 지출 → 지역 내 생산 증가 → 지역 내 재투자 → 지역경제 활성화」의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지출구조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적으로 가계소비의 지역 내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의료 인프라 구축 등 지역 내 재화 및 서비스 공급기반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지역화폐, 지역 원료 및 생산품 이용 유도, 'Buy Local' 제도 등을 활용하여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가 지역 생산 제품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각 세부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지역화폐 제도 등의 활용

- 지역화폐란 특정지역 내의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화폐를 통해 거래하는 것으로, 이를 서귀포지역 내의 생산-유통-소비 단계에 확대·적용⁷⁾하여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함

7) 기존 지역화폐 운동은 지역주민의 노동력과 물품을 가상의 지역화폐를 매개로 교환·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한정되고 있음

- 지역화폐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하여 그 지역 내의 돈을 순환시킴으로써 경제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꾀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아베 요시히로, 2003)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주사랑 상품권' 등이 지역화폐의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음

□ 지역화폐

-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및 집단 내부에서 행해지는 상품 교환, 상호 증여, 상호보조를 목적으로 도입
 -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보호, 자립적 지역경제의 창출, 지역사회 상호부조 증진,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에 귀속된 경제제도 재구성 등을 추구
- 국내에서는 1998년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역화폐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한 이후 다수의 지역화폐가 등장하였으나 현재 활성화는 미흡한 상태
 - 대전지역 한밭레츠가 운영하는 '두루', 민들레 교육통호의 '민들레', 그린네트워크의 '녹색화폐', 송파구의 자원봉사센터의 '송파품앗이' 등이 있음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9), 지방주도의 경제활성화 과제

- 이와 함께 서귀포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품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직거래 장터'를 일회성이 아닌 상설 운영하는 방안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지산지소 운동의 현장, 日 농협 직판소(直販所)

- 직판소는 글자 그대로 농민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곳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어 지산지소 운동의 대표적인 유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직판소는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계약을 맺은 농민들이 당일 수확한 농산물을 매대에 올려놓으면 농협측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 농협은 공간을 제공하고 판매를 대행하는 대신 판매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음
 - 일반 판매점 출하시 수수료(판매액의 20~30%)에 비해 저렴

자료: 연합뉴스 2010. 11. 13일자

■ 지역 생산 원료 및 상품 이용 촉진 방안

- 지역 특산품 생산업체에 대한 지역 내 생산 원료 이용 및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생산품 판매 유도 등의 방안을 통해 기업의 지역 생산품 이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 특산품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내 생산 원료 이용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생산품 이용률을 제고하고, 대상 업체에 대해 브랜드 사용 권한 부여 및 공동 마케팅 관련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지역특산물 생산업체의 지역내 원료 사용 규정

- 전라북도는 지역특산물 생산업체가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원료를 80%(도내 생산 재료 60%, 국내산 재료 20%) 이상 사용할 경우 '지역 특산물 생산 지원업체'로 선정, 보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최근에는 나머지 20% 의 원료 사용에 대해서도 수입산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

자료: 대한뉴스 2009. 10. 7일자

- 대형 유통업체는 본사에서 물품 구매 등을 담당하므로 지역 상품 이용률이 매우 낮으나, 지역경제와의 상생 차원에서 지역 상품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협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도 '공정사회' 바람.. '기업체, 번 만큼 베풀라'

(자치단체 및 기업 공정사회 협력 사례)

- 대구시
 - 2007년 부터 대형마트로부터 매년 지역기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
 - 대형마트 18곳, 슈퍼마켓 27곳, 백화점 5곳에 대한 전체 직원 중 현 지인력 95% 이상 채용, 지역 제품 구매 비중 30% 유지, 각종 인쇄물 지역업체에 제작 의뢰 요구
- 강원도
 - 2010년 11월 유통산업균형발전 및 중소기업상권자 지원 조례 제정
 - 권고안의 성격을 갖는 이 조례에는 대형마트에 대한 지역업체의 납품 입점 확대, 매출액의 일정액 지역은행에 예치율 제고 등의 내용 수록

자료: 중앙일보 2010. 10. 7일자

■ 지방정부의 지역상품 이용 촉진 제도

-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최근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Buy Local' 정책과 같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제적 효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일본 지방정부의 Buy Local 사례

- 미국 Lancaster 지방정부는 지역에서 300달러 지출시 30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자동차 등록비 보상으로 판매를 유도
- 미쓰비시 자동차의 하청 등 관련 기업이 집적해 있는 오카야마현 소유자시에서는 동사의 신차 구입자에게 10만 엔을 지원
- 히로시마현은 공용차의 30%인 2백 대(약 2억 7천만엔)를 현 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쓰다의 소형차 '데미오'로 구입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9), 지방주도의 경제활성화 과제

3. 기반산업의 경쟁력 강화

- 서귀포지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반산업인 농림어업과 관광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필요함

■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선 구조조정, 후 품질 제고

-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서귀포지역의 산업구조는 향후 FTA 체결 확대 등 대외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서귀포 지역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산업구조의 조정이 필요함

- 이에 농림어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선 농업 구조조정, 후 품질 제고' 전략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현재의 감귤 농업 종사자 전체가 고품질 감귤을 생산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힘들 것임
 - 서귀포지역의 현재 유기농 농산물, 무(저)농약 농산물 생산은 서귀포지역 내 전체 농업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음(2009년 경지면적 기준)
 - 많은 농가에서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유기농 농산물 또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음
 - 즉, 농업부문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 구축을 통한 농업부문의 생산 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이와 함께 농가인구의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농림어업에서 타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필요가 있음
 - 고령농가 은퇴 지원 제도, 부채농가 워크아웃(work-out)제도, 조기은퇴 직불제, 농촌형 역모기지론,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등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관광수요의 질적 향상

- 서귀포지역 관광산업은 1인당 관광지출액이 큰 신희여행객의 방문이 줄어들어 등 1970~80년대 누렸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음

- 2009년 제주지역 방문 관광객 수는 6,524천명이나, 이 중 관광지출액이 큰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관광객의 9.7% 수준인 633천명에 불과함
- 수학여행단 등의 단체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26.6% 수준인 1,737천명에 이룸
-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내국인 관광객 유치보다는 관광지출비가 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수요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방문 관광객 수 보다는 관광수입이 중요함

□ 제주 관광 vs 하와이 관광

- 세계적인 관광지인 하와이의 2009년 기준 관광객 수는 약 652만명으로 같은 연도 제주 방문 관광객 수와 비슷한 수준임
- 그러나 관광수입을 비교해보면 하와이의 2009년 관광수입은 11.2조원⁸⁾(환율 1,118원 기준)으로, 제주의 2009년 관광수입인 2.8조원의 약 4배에 달함
 - 하와이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1인당 지출비용은 약 1,715천원(환율 1,118원 기준)임에 반해서, 제주 방문 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국인 관광객의 1인당 지출비용은 약 356천원에 불과함⁹⁾

- 이를 위해 해외 마케팅 등 해외 수요 유인 전략을 수립하여 외국인 및 신희여행 관광수요를 증대시켜야 함

8) State of Hawaii DBEDT(Department of Business, Economic Development & Tourism), 2009 Annual visitor research report
 9) 제주 입도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지출비용은 1,149천원임

-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계'의 세계자연유산 지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들의 제주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6월 현재 세계자연유산지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54,000명으로, 2008년 같은 기간(127,000명)에 비해 21.2% 증가함

4.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건전한 투자 유치

- 그동안 서귀포 지역경제를 이끌었던 감귤과 관광산업은 이제 견인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기존 기반산업을 대체하여 향후의 서귀포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음
- 신성장동력산업은 산업간 연관관계 강화, 새로운 수요 창출, 제주혁신도시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될 필요가 있음

■ 음식료품제조업 육성

- 서귀포지역은 제조업 비중이 낮아 산업간 연관관계가 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산업간 연관관계가 약할 경우 산업의 전·후방 연계효과¹⁰⁾가 낮기 때문에 정책 및 수요 증대에 따른 경제파급효과가 낮게 나타남
- 산업간 연관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10) 전방연계효과는 특정 산업의 제품이 다른 산업들의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효과를 말하며, 후방연계효과는 특정 산업의 성장이 해당 산업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산업들의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를 말함

- 서귀포지역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원료 지향형 제조업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표적인 업종에는 음식료품제조업이 있음
- 서귀포지역은 소비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류비 등에서 타지역 생산 제품에 비해 비교열위일 수밖에 없는 바, 소비지향형 제조업이 아닌 원료지향형 제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서귀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신선 농수축산물이 아닌 이를 활용한 식품으로 가공할 경우, 1차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음식료품제조업을 통한 가공식품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포장비용의 절감으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수요 창출형 산업 육성

- 현재 서귀포 지역경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요는 주민들에 의한 가계 소비 수요와 관광객에 의한 관광소비 수요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이러한 소비수요에 의해 서귀포지역 내 유통업체와 관광업체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즉 가계소비 수요에 의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관광소비 수요에 의해 호텔, 관광시설 등 관광업체가 서귀포지역에 진출하고 있음
- 서귀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수요를 잠식하는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시 말해서 현재 지역경제의 파이를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해야할 것임

- 여기서 수요 창출형 산업이란 기존 소비수요와는 달리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함
- 서귀포지역의 지리적 여건 및 향후 정부 정책의지 등을 감안할 경우, 신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는 명품(의류)산업, 의료관광산업, 실버산업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유럽에서는 명품 및 의료관광을 통해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한 경우가 있음
 - 최근 한국인의 필리핀 은퇴이민 증가 추세를 감안할 경우 실버산업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필리핀 은퇴청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은퇴비자 신청자 수는 2000년 79명, 2004년 219명, 2006년 1,179명, 2007년 2,620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김동엽, 2009)

□ 헝가리 쇼프론(Sopron)市: 임플란트 천국

- 헝가리 쇼프론시(면적 169km²)는 인구 5만7천여명의 도시에 치과의사만 무려 250명이 영업
 - 이 곳의 치과병원들은 저렴한 인건비와 간접비를 토대로 서유럽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의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 의료관광의 허브로 도약
 - 해마다 외국인 환자 약 20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은 8천억원 수준

조선일보 2009. 10. 12일자

□ 독일 메칭겐(Metzingen): 명품 아울렛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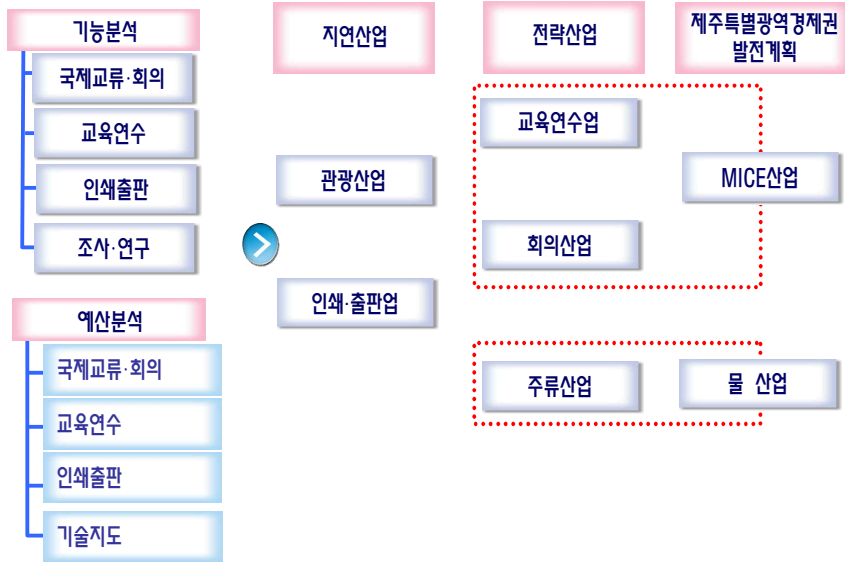
- 독일 남쪽 슈바빙 산맥 자락에 있는 인구 22,000명의 도시는 명품 ‘휴고 보스’의 본사로 인해 명품 아울렛 도시로 자리매김
- 메칭겐은 팩토리 아울렛(제조업체가 생산라인 바로 옆에서 직영하는 대형 할인매장)의 본고장으로 관광객 방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현재 Esprit, Marc’O Polo, Puma, Nike, Gerry Weber, Strenesse, Reusch, Burberry, Tommy Hilfiger, Swatch, Escada, Bally, Vaude, Lacoste 등의 명품 아울렛 매장이 있음

자료: <http://www.metzingen.de>

■ 제주혁신도시 연계 산업 육성

- 제주혁신도시에는 국토해양인재개발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9개 공공기관이 이전될 예정임
- 이에 서귀포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은 이전 공공기관의 산업적 특성과 연관된 산업을 선정·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이전 공공기관의 교육연수 기능, 회의 기능, 주류 기술지도 기능 등과 연관하여 교육연수업, 회의산업, 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교육연수업 및 회의산업 등은 서귀포지역의 관광산업, 인쇄출판업과의 연계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 및 예산분석 결과와 제주특별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의 연계 가능성을 토대로 도출한 제주혁신도시 전략산업을 도식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2009), 제주혁신도시 기업유치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발전방안 연구

(그림 5-2) 제주혁신도시의 전략산업

- 이와 관련된 신사업 기회를 포착하여 지역 내 기반산업과의 연계·육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2006). 대형마트 지역별 점포현황
 김동엽(2009). 동남아 은퇴이주의 실태와 전망: 필리핀을 중심으로, 동아연 구 제57집
 김홍배(2005).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론
 삼성경제연구소(2002).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삼성경제연구소(2009). 지방주도의 경제활성화 과제
 제주특별자치도(2005~2010) 사업체조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2030 제주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2009). 제주혁신도시 기업유치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발전방안 연구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2009). 전남지역 은퇴도시 조성의 시사점
 한국은행 제주본부(2008). 최근 제주지역의 자금유출입 변화와 시사점
 Deller SC.(1995). Economic Impact of Retirement Migration.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9(1). 25-38.
 Hodge G.(1991). The Economic Impact of Retirees on Smaller Communities: Concepts and Findings from Therr Canadian Studies. Research of Aging. 13(1). 39-54.
 Reeder RJ.(1998). Retiree-Attraction Policies for Rural Development. Food and Rural Economics Division, Economic Research Servi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griculture Information Bulltin No. 741.

Sasrty ML.(1992). Estimation the Economic Impact of Elderly Migration:
An Input-Output Analysis. Growth and Change 23. 54-79.

State of Hawaii DBEDT(Department of Business, Economic Development
& Tourism), 2009 Annual visitor research report